

“민생안정 최우선 군민과 함께 ‘영광’ 발전 견인”

2025년 영광군 현황·주요 역점사업

#현황
 · 인구수 5만1999명
 · 예 산 7015억원
 · 직원수 708명

#역점사업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 참여
 · 전 군민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
 ·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교육재단 설립 준비
 · 벼 재배 농가 특별경영안전자금 62억원 긴급 지급
 · e-모빌리티 미래산업 육성
 ·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방안 도입



2025 새해설계

장세일 영광군수

지역상품권 발행 확대 경제 회복 최선
 모빌리티·에너지신산업 육성 경쟁력 강화
 재생에너지 기반 군민 평생 연금 마련
 공공일자리 확대 편안한 노후 지원

“함께 만드는 영광, 같이 누리는 군민”이라는 군정 구호 아래 군민 행복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군정을 펼쳐가겠습니다.”

장세일 영광군수가 신년사를 통해 “지속된 경기 침체와 고물가, 고금리의 여파로 민생 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며 “소비를 되살려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 성장 동력을 강화해 영광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영광군은 전 군민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기본소득 도입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방침이다.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맞춤형 경영안정 지원, 묘량농공단지 기업 유치 등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래를 선도하는 전략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e-모빌리티 수출 지원, 투자선도 지구 기반 시설 조성, 정정수소 산업 육성, 무탄소 에너지 실증연구단지 구축 등 스마트 모빌리티와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장세일 영광군수.

재생에너지 기반 RE100 산업단지 조성, ‘군민 햇빛 바람 에너지 연금’ 지급을 위한 단계별 이행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해 군민 평생 연금 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

어르신 복지도 한층 강화한다.

어르신 건강관리, 돌봄, 문화·여가 시설을 아우르는 영광형 보건·복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경로우대 목욕 이용권과 경로당 부식비 지원을 확대하고 효행 수당 지급, 공공 일자리 확대, 틀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으로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청년육아나눔터 운영, 어린이 축제와 영광형 키즈카페 조성 등 은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가족 친화도시 조성에도 힘쓴다.

지속가능한 농·수·축산업 육성을 위해 주요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과 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해 기후변화와 재해에 대비한다.

스마트팜 기반 조성, 미래농업자원육성센터 설립을 통한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 가공·산업화 지원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도 주력한다.

스마트 축산과 안전 축산물 공급 체계를 강화하고 산림자원 육성과 수산물 가공·유통기반을 확충해 농어민 소득 증대와 경영 안정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종교 순례 테마 관광 명소화 사업, 백수 해안 노을 관광지 조성, 불갑사 관광지 확장 등 관광 기반 확충,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관광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영광 문화예술촌 운영과 묘량 파크골프장 개장, 스포츠센터 운영 등 군민 건강증진과 문화·체육이 공존하는 활기찬 영광을 만든다.

장세일 군수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모두가 함께 잘 살고, 군민 각자의 삶이 빛나는 영광을 만들기 위해 힘 없이 뛰겠다”며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아 군정에 혁신을 더하고 군민과 함께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영광군, 청년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임차비 지원 2년으로 확대

영광군은 지역 청년들의 안정적인 창업 환경 조성을 위해 ‘청년 창업지원사업’ 참여자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임차비 지원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예비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초기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총 9개소(리모

텔링 3개소·임차비 6개소)를 선발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둔 19세부터 45세 이하(1980~2006년 출생자) 예비 청년 창업자 또는 1년 미만 초기 청년 창업자다.

영광군 관계자는 “창업에 대한 청년들의 열정과 아이디어가 지역사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영광=김도윤 기자

영광군,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장세일 영광군수가 농어촌버스 카드 단말기를 살펴보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 1일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중이다.

영광군 제공

영광군이 지난 1일부터 군에 주민등록 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영광군, 공정육묘장 고추 육묘 신청 접수

17만5000주 범위 내 선착순

영광군은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공정육묘장 고추 육묘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고추 육묘 신청접수는 17만5000주 내에서 선착순으로 받을 계획이며 농가별 2000주(40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는 각 읍·면 농업인상담소에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방문해 육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다. 고추 육묘 품종은 재배 안정성을 고려해 선정한 병·해충 저항성(복합내병계) 10품종이며 육묘 후 공급할 고추 모종 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1주당 300원(1만5000원/판)이다.

신청 농가는 소농 및 고령농가를 위주로 가능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추 육묘 관리 및 경영상 어려움 해소에 주력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자원연구팀(061-350-5096)으로 연락하면 된다.

영광=김도윤 기자

영광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지원 특별 모금

영광군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 모금에 참여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모금은 오는 31일까지 실시하며 모금된 기부금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피해자 구호자금 등 필요한 곳에 배분될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분들과 그 가족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영광군에서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을 공직자 특별 모금 기간을 운영하고 공직자가 솔선수범해 모금에 참여할 계획이다.

영광=김도윤 기자

영광군, 전군민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급

1인당 50만원... 13일부터 접수

영광군은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군민 생활안정을 보장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인당 50만원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 1차분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1차분은 지난달 27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둔 총 5만2333명(결혼이민자·영주권자 포함)에게 260여억원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영광사랑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금은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에서도 지난해 영광군의회에서 예산과 지원 조례를 승인함에 따라 집행부에서 설 이전 지급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신청대상자는 지급 기준일(2024년 12

월27일)부터 신청일까지 영광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 주소가 돼 있는 군민이며 사망자, 전출자, 주민등록말소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 접수기간(1차)은 오는 13일부터 2월19일까지로 현장방문 없이 ‘그리고’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성인(만 19세 이상) 개인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하면 된다. 방문 신청 시 본인인 경우 신분증과 사용 중인 ‘영광사랑카드’를 지참해 신청하고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위임하는 사람·위임 받는 사람의 신분증 및 ‘영광사랑카드(위임자)’가 필요하다.

영광사랑카드가 없는 신규 또는 재발급인 경우 수수료 없이 현장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

7일 영광군에 따르면 대상자는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수령한 교통복지카드를 갖고 농어촌버스를 횡수 제한없이 탑승할 수 있다.

다만 교통복지카드의 적용범위가 영광군 농어촌버스 운수업체가 운행하는 노선에만 한정되어 있어 합평교통, 장성교통, 고창교통 등 인근 지자체 버스에는 교통복지카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얻어붙은 지역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 넣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영광군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신청자와 생일이 지나 만 65세가 되는 자는 주소지 기준 읍면사무소에서 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영광=김도윤 기자

신청은 지급기준일 기준 주소지 읍면에서 가능하며 창구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요일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진행된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신청자, 화요일에는 2와 7, 수요일에는 3과 8, 목요일에는 4와 9, 금요일에는 5와 0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지급된 지원금(1차분)은 오는 9월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처는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 중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을 제외한 모든 가맹점이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 잔액은 영광군에 환수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이 위축된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높여 얻어붙은 내수경제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